

# 조용하지만 울림은 더 커진 2020 턴투워드부산

(11월 11일 11시 1분간 묵념)

코로나19로 해외참전용사 없이 진행  
10월 23일~11월 11일 부산유엔위크  
부산 전역서 다양한 추모행사 마련

유엔군 전몰용사 국제 추모식인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는 유엔 참전용사 및 유가족 초청 없이 진행된다. 추모식은 국내 참전용사와 보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1월 11일 11시에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다. 이날 11시 정각에는 일반 시민들도 전몰용사를 향한 묵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산시 전역에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려 퍼진다.



대규모 초청 행사는 없지만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남구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유엔평화문화특구 거리에 유엔참전국 22개 국기를 게양했다. 도시철도2호선 대연역~유교차로~유엔기념공원~평화공원~대천사거리~경성대부경대역 거리에 22개국 참전국가의 배너 형태의 국기 120조를 내걸어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남구청 주변으로도 유엔기, 태극기, 유엔참전국 국기를 게양했다.

부산시는 제75회 유엔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0월 23일부터 턴투워드부산 행사가 열리는 11월 11일까지 '2020 부산 유엔위크'로 정하고 부산 전역에서 유엔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10월 23일~31일까지는 감사주간으로 정하고 UN의날 기념식, 세계평화포럼, 국제평화도시 선포식, UN Award, 평화의 빛(Blue) 점등 등 7개 행사가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전역에서 열렸다.

11월 1~11일은 추모주간으로 9개의 추모 프로그램이 시민 참여 형태로 마련된다. 시는 11월 6일 시청에서 유엔과 해외조달시장 관계자들을 초청해 부산기업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진출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는 UN공공조달설명회를 최초로 개최한다. 11월 8일은 시민과 참전국가 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UN평화문화특구 걷기대회를 가진다. 이밖에 턴투워드행사 전야제로 11월 10일 평화물결음악회를 부산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턴투워드부산 행사는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씨가 제안해 2007년 부산시 주최로 처음 열렸고 이듬해부터 국가주관행사로 격상돼 국가보훈처가 매년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하고 있다. 11월 11일은 1차 세계대전 종전일로 영국·캐나다 등 영연방국가의 현충일(Remembrance Day)이자 미국의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인 동시에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11개 참전국을 의미한다.



유엔기념공원 내 전몰장병 추모명비에는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22개국 4만896명(실종자 포함)의 유엔군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사진=이우현 명예기자(사진작가)

## ‘턴투워드부산’ 홍보대사로 변신한 빼빼로 남구의 종매로 경쟁자에서 동반자로



턴투워드부산 홍보문구 인쇄된 제품 전국 판매 시작  
“11월11일 겹쳐 홍보 도와달라” 남구의 간청에 응답

남구청의 노력으로 롯데제과의 빼빼로가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홍보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롯데제과는 턴투워드부산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자사의 빼빼로데이 기획상품 70만개 걸면에 턴투워드부산을 알리는 홍보문구를 인쇄해 시판에 들어간다.

빼빼로가 턴투워드부산의 ‘홍보대사’로 변신한데는 남구청의 남 모르는 노력 덕분이다. 6.25전쟁에서 희생한 4만여 유엔군을 추모하는 턴투워드부산이 국가행사임에도 11월 11

일 빼빼로데이와 날짜가 겹쳐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다. 이점에 착안해 지난해 10월 남구청장이 롯데제과 측에 이런 사연과 함께 ‘턴투워드부산 행사에 빼빼로데이가 힘을 보태주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고 1년 만에 롯데가 메시지에 응답하면서 성사되었다.

남구와 롯데제과는 빼빼로 패키지 상품의 홍보문구 인쇄에 그치지 않고 스웨덴, 캐나다 등 4개국의 참전용사와 가족 300명에게 빼빼로 기획



상품 2종과 마스크, 감사편지를 배송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커트니 씨는 “어린 학생과 젊은이들이 빼빼로를 통해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알게 돼 더할 수 없이 기쁘다”며 감사편지를 보냈다. 커트니 씨는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한국인 부인 막레 커트니 여사와 생활하고 있다. 2018년 전립선암이 재발돼 최근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

미래성장담당관 ☎607-3652

## 턴투워드부산 제안 빈센트 커트니 씨 남구에 감사 편지 “부산의 눈부신 첫인상 70년간 간직”

부산의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턴투워드부산 국제 추모식을 제안한 빈센트 커트니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여행제한 조치 외에도 저는 며칠 안에 세번째 암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남구청장님과 롯데제과 대표이사님이 한국의 빼빼로데이에 맞춰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일을 공동 기획하신 것에 대해 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십, 수백만명의 한국 청소년들에게 같은 날 열리는 턴투워드부산 기념식에 관해 들려주는 것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봉사를 알게 해주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번 빼빼로 프로그램은 지난 45년



동안 한국 국민들이 참전용사들에게 보여준 감사와 명예의 또 다른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제는 한국전쟁 때 저와 함께 복무한 전우 한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우리 둘 다 내년에 우리의 한국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봉사는 저와 함께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할 때 17세가 되었는데, 그는 부산에 상륙한 지 며칠 뒤 작전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도착해 강하고 활기찬 나라와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70년이 흘렀지만 저는 지금도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 심청이의 마음으로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남구 주민들의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요청에 부응하여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

\* 낮동안 돌보는  
**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

\* 가정으로 찾아가는  
**노인방문요양서비스**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1~5등급, 인지등급)
-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관련 무료상담

문수노인통합지원센터 ☎ 051)711-1244

\* 일상생활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긴급·위기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이용대상 : 저소득·독거노인,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내용 : 도시락, 밑반찬, 생필품 지원 등
- 후원안내 : 후원금, 쌀, 식료품 등 후원

용호종합사회복지관 ☎ 051)628-6737

후원계좌 :  
부산은행 083-01-035041-4  
(예금주 : 용호종합사회복지관)